

## 의류학 교과과정에서의 WebCT의 도입 - 온라인강의시스템에 대한 테크놀로지 수용모델 -

이규혜\* · Leslie Stoel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The Ohio State University

전 세계적인 온라인 이용의 증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통적인 교수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정보의 이용이나 과제의 제작, 제출에 있어, 사이버 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거의 모든 고등교육기관에서 수강신청, 강의 평가나 성적 조회 등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변화된 소비자인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강의보조자료가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하더라도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는 학과의 특성상 의류학이나 머천다이징 전공교과목의 온라인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실정이 아니며 더군다나 강의보조자료로서의 온라인공간이나 온라인강의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나 효과 등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주요 주립대학에서는 1997년경에 개발되어 1999년부터 본격적인 사용에 들어가고 있는 WebCT (Web-based course tool) 이라는 e-learning 소프트웨어를 각 대학별로 도입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WebCT는 종합적인 온라인 강의의 시스템으로 내부에는 웹페이지 형식이나 문서, 그림화일로 만들어진 거의 모든 강의자료를 올릴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강사가 교육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5개의 강의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강의 도구로는 전체 학생명단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WebCT e-mail 기능, 온라인 grade-book을 통한 강사-조교의 원활한 점수관리시스템, 온라인 시험, 온라인 과제제출, 과제발표 및 과제 평가기능, 그룹별 활동이나 토론이나 등 기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수업방식이 온라인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웹페이지의 구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교강사 및 조교가 매우 쉽게, 그리고 각 강의의 성격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이용한 인증방식으로, 안전한 정보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강사로서 개별 학생들의 온라인 행동, 즉 누가 언제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하였는지가 모니터 됨으로써 적어도 사이버공간에서의 학생들의 개별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온라인강의시스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1986년 Davis에 의해 처음 개발된 테크놀로지 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로 알아보고자 한다. 테크놀로지 수용모델에 따르면 특정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은 이에 대한 지각된 편리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편리성과 유용성은 특정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 (선호도)에 영향을 미

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실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수용모델은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혹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용에 응용되어 그 타당성이 잘 검증된 모델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머천다이어징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WebCT를 교과과정에 2000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여섯 개의 전공필수 교과과목에 WebCT를 온라인 보조도구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도구의 수용여부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설문지에는 테크놀로지 수용모델에서 제시한 문항들이 이용되었다. 응답자들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는 학생들이 현행강좌를 수강하기 이전에 WebCT를 사용한 강의를 몇 번 들었는가가 질문되었다. 설문지는 2001년부터 WebCT를 이용한 과목에 대해 4개 학기에 연속적으로 배포되어 매학기 초에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한 매학기 말에는 교강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성적자료가 취합되었고, WebCT내 주요 사이트 방문 횟수(hit) 등 학생들의 행동에 관련된 데이터가 WebCT로부터 취합되어, 수집된 설문지 자료와 통합되었다. 자료의 통합결과 총 1200여개의 설문자료 중 618개의 통합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618명의 응답 중 91.2%가 여학생이었고, 2, 3, 4학년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LISREL 7.2를 이용하였다.

LISREL을 이용한 테크놀로지 수용모델 테스트 결과 전반적으로 모델은 높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WebCT라는 온라인강의시스템에의 테크놀로지 수용모델의 도입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계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생들의 WebCT 경험은 지각된 유용성보다는 지각된 편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각된 편리성과 유용성은 WebCT이용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다시 사용의도에 영향을 주고 사용의도는 이용시간이나 빈도와 같은 학생들의 실제행동변수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유용성의 경우 태도뿐 아니라 사용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연구에 매학기 말에 취합된 행동변수 중 테크놀로지 수용모델로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변수는 이용시간이나 주요 페이지 방문횟수(hit)보다 이용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WebCT라는 온라인강의시스템을 교육환경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보고, 이의 영향을 테크놀로지수용모델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태도나 이용을 높이는 것은 지각된 유용성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강의 환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히 학생들을 이에 익숙하게 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새 시스템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틀이나 자료는 미국대학의 것으로 앞으로 후행연구에서는 한국적인 환경에서 온라인강의(보조)시스템에 대한 한국대학생들의 수용경향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